

# KIA, 뜨거운 타격으로 1위 LG 상대 3연승 질주



‘호랑이 군단’이 뜨거운 타격으로 1위를 상대로 3연승을 달렸다.

KIA 타이거즈가 1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즌 14차전에서 8-7 재역전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다. 전날 진행된 더블헤더 두 경기에서도 최형우의 대타 역전 만루홈런 등으로 역전극을 연출했던 KIA는 뒷심싸움에서 이기며 4위 자리를 지켰다.

1회부터 KIA의 공세가 펼쳐졌다. 1사에서 김도영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도루로 2루까지 향했다. 이어 나성범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김도영이 홈까지 들어왔다. 최형우의 중전안타가 이어지면서 1사 1·3루, 소크라테스가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김선빈의 공이 중견수 앞에 떨어지면서 적시타가 됐다.

2회에도 KIA의 득점이 올라갔다. 황대인이 선두타자로 나와 볼넷으로 출루했고, 김태군의 희생번트도 1사 2루가 됐다. 박찬호의 중전안타로 만들어진 1사 1·3루에서 김도영이 우익수 앞으로 멀리 공을 보내 희생플라이를 만들었다. 나성범의 펜스 맞는 타구까지 나오면서 KIA가 4-0을 만들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왔다. 나성범이 안타를 기록하기 전 4구째 파울 타구에 왼쪽 발을 맞았다. 상태를 체크했던 나성범은 그대로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어냈지만 고통을 호소하면서 결국 대주자 최원준으로 교체됐다. 김진 결과 다행히 타박상 진단을 받으면서 KIA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3회에도 KIA 방망이는 쉬지 않았다. 소크라테스의 볼넷을 시작으로 김선빈이 중전안타로 분위기를 살렸다. 이창진이 3루수 파울플라이 아웃으로

9일 더블헤더 만루홈런으로 승리

10일 14차전도 8-7 재역전승

대체선발 내고도 타격으로 뒤집어

물러났지만 황대인의 볼넷으로 만루가 채워졌다. 이어 김태군의 적시타로 5-2를 만든 KIA는 박찬호의 희생플라이와 김도영의 좌전안타로 7-2까지 달아났다.

KIA의 뜨거운 공세에 LG 선발 최원태는 2.2이닝(81구) 8피안타 5볼넷 3탈삼진 7실점을 기록하고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타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이 대체 선발 김건국이 묵묵히 역할을 해냈다.

1회초 신민재를 삼진으로 잡는 등 삼자범퇴를 만들었고, 2회에도 오지환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깔끔하게 2이닝을 처리했다. 3회 벨런스가 흔들리면서 김건국이 실점을 했다.

볼넷으로 선두타자 문성주를 내보냈고, 박해민에게 우전안타도 허용했다. 포수의 송구 실책도 기록되는 등 김건국이 3회 2실점을 했다. 4회에는 2루타 2개로 1실점.

5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던 김건국의 성적은 4.1이닝 5피안타 1볼넷 3탈삼진 5실점. 실책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야수진의 아쉬운 수비들로 5회를 마무리 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이후 윤중현-장현식에 이어 최지민이 마운드에 올랐지만 불안불안한 수비까지 더해지면서 6회초 KIA가 7-7 동점을 허용했다.

7회말 앞서 공수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최원준이 해결사가 됐다.

박찬호가 선두타자로 나와 정우영을 상대로 우전

안타에 이어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무사 2루. 김도영의 타구가 투수 맞으면서 유격수 땅볼이 됐고, LG가 투수를 김진성으로 교체했다.

최원준이 좌전안타를 날리면서 2루에 있던 박찬호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어 최원준이 2루에 이어 3루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LG 배터리를 흔들었다. 최형우와 소크라테스의 볼넷을 더해 베이스를 가득 채운 KIA의 시선은 김선빈으로 향했다.

앞선 4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기록했던 김선빈. 그러나 이번에는 유격수 앞으로 공이 향하면서 6-4-3의 병살타가 기록됐다.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전상현이 8회를 책임진 뒤 정태영이 마지막 9회를 마무리했다.

8-7, 1점의 리드를 안고 마운드에 오른 정태영은 8구까지 가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김현수를 1루 땅볼로 처리했다. 이어 오스틴은 유격수 땅볼로 잡으면서 투아웃 그리고 공 하나로 문보경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3연승을 확정했다.

9일 더블헤더 1차전 황동하에 이어 이날 김건국까지 대체 선발을 내세웠던 KIA는 깜짝 3연승에 성공하면서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다.

김건국은 “5회를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지만 마운드에서 버티면서 상대팀 선발보다 늦게 내려온 자체에 의의를 두겠다. 또 팀이 이겼다는 게 중요하다. 내가 나갈 때마다 팀이 이겨서 다행이다”며 “생각보다 스피드가 안 나왔는데 (김)태군어랑 이어 가하면서 변화구로 가져간 게 중요했던 것 같다. 팀에 도움이 됐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결승타를 기록한 최원준은 “대타로 빠질 줄 알았다. 고종욱 선배가 워낙 잘 치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감독님께서 나갈 때 파이팅 하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자신 있게 보답하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원준

## 이의리, 손가락 물집에 또 쉬어간다

큰 부상 아닌 선수 보호 차원

KIA 타이거즈 이의리가 또 쉬어간다. 이번에는 손가락 물집이 문제가 됐다.

KIA가 10일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전날 LG와의 더블헤더 2차전 선발로 나와 왼손 중지 굳은살이 벗겨지면서 5회 1사에서 등판을 마무리했던 이의리가 엔트리에 빠져들었다. 대신 이날 경기 선발이었던 김건국이 엔트리에 등록됐다.

김중국 감독은 “물집이 벗겨졌는데 한 턴 쉬면 될 것 같아서 김건국으로 교체를 했다”며 “좋아지려고 하니 물집이 문제가 됐다. 투수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어깨 이슈에서 편안해지니까 물집이 문제가 됐다”고 이의리의 말소를 언급했다.

이의리는 지난 8월 23일에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8월 22일 KT전 등판 도중 왼쪽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4회 등판을 끝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났고, 병원 검진 결과 단순 염증 진단을 받았다.

우려와 달리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KIA는 선수 관리 차원에서 엔트리에 말소하며 휴식을 줬다. 재검진 결과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9월 2일 SSG전을 통해 마운드로 복귀했던 이의리는

9일 LG전까지 두 경기를 소화한 뒤 다시 한 턴 쉬어갈 예정이다.

후반기 한층 정교해진 제구로 기대감을 키웠던 이의리지만 복귀 후 두 경기에서는 제구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3일 SSG전에서는 3이닝 4피안타(2피홈런) 3볼넷 4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고, 9일 경기에서는 1회부터 3개의 볼넷을 기록하면서 출발이 좋지 못했다. 2회에는 연속 안타 뒤 볼넷으로 무사 만루 위기를 맞았고, 2루 송구 실책도 기록했다.

이후 3회를 삼자범퇴로 마무리하면서 안정세를 찾은 것 같았지만, 이의리는 5회 김현수를 상대로 이날 경기 세 번째 탈삼진을 잡아낸 뒤 손가락에 문제가 생기면서 김대유로 교체됐다.

이날 성적표는 4.1이닝(85구) 3피안타 5볼넷 3탈삼진 4실점(3자책점).

복귀 후 두 차례 등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는 내지 못했지만 팀은 뜨거운 화력으로 이의리가 출격 한 두 경기를 모두 역전승으로 장식했다.

3일에는 KIA가 SSG 마무리 서진용을 상대로 역전극을 연출했고, 9일 경기에서는 최형우의 대타 역전 만루홈런이 나오면서 1위 팀 LG를 상대로 더블헤더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AI페퍼스, 류혜선·박수빈·이주현·이채은 선발

광주·전남 출신 단 한 명도 없어  
광주여대 이채은 수련선수 지명

2023-2024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 신인 선수 선발에서 광주·전남 출신이 단 한 명도 지명을 받지 못하면서 프로의 벽을 실감했다.

1라운드 지명권을 잃은 광주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유일한 대학 선수인 이채은(광주여대)을 수련 선수로 지목하며 겨우 지역 연구 구단 ‘홍내’를 냈다.

페퍼스는 1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2023-2024 한국배구연맹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참여한 40명 가운데 류혜선(18·일신여상)을 포함한 4명을 지명했다.

2라운드 첫 번째로 나선 페퍼스 조 트린지 감독의 부임 후 첫 선택은 아포짓 스파이커와 아웃사이드 히터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류혜선이었다.

키 178.4cm의 류혜선은 경남여중을 졸업하고 일신여상에 재학 중이다.

페퍼스는 지난 5월 이고은을 재영입하는 과정에서 2023-2024시즌 신인 선발 1라운드 지명권을 뺏겨 이번 시즌 드래프트 ‘최대어’ 김세빈(한북고·미들블로커)을 지난 시즌 우승팀 한국도로공사에 내줬다. 애초 김세빈은 지난 시즌 최하위 페퍼스로 갈 가능성이 컸지만, 페퍼스는 보호선수 지정 실수로 보낸 주전 세터 이고은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도로공사에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겼다.

페퍼스는 공격수에 이어 2라운드 7번째 지명에서 박수빈을 부르며 세터를 보강했다.



광주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10일 열린 신인 선수 선발에서 총 4명을 지명했다. 수련 선수 리베로 이채은(광주여대·왼쪽부터), 아포짓 스파이커·아웃사이드 히터 류혜선(일신여상), 세터 박수빈(포항여고), 세터·리베로 이주현(경남여고)이 페퍼스의 빨간 점퍼를 입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AI페퍼스 제공)

포항여고의 유일한 드래프트 신장자인 박수빈(키 174.6cm)은 지난해 김세빈과 함께 한국 여자 18세이하하우스(U18) 대표팀 세터로 뛰었다.

3라운드에서는 페퍼스만 지명권을 행사하며 세터와 리베로를 볼 수 있는 경남여고 이주현을 뽑았다.

4라운드에서는 현대건설만 유일하게 선수를 지명(최호선·일신여상)했다.

이어 진행된 수련 선수 지명에서는 광주여대 리베로 이채은(포항여고 졸업)이 페퍼스의 지목으로 빨간 점퍼를 입었다.

이번 지명으로 이채은은 여자프로배구 최초로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은 대학생으로 이름을

남겼다.

한편 이번 드래프트에서 15개교 40명 참가자가 가운데 21명(수련 선수 6명 포함)이 지명돼 지난해(42.9%)보다 높은 취업률 52.5%를 기록했다.

광주체고와 목포여상 등 광주·전남에서 출사표를 낸 고교 졸업 예정자 4명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조 트린지 감독은 “공격수와 세터 등을 보강하기 위해 순서를 계획했다”며 “계획한 순서대로 지명할 수 있었기에 이번 드래프트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19세 코코 고프, US오픈 테니스 챔피언

10일(한국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일군 코코 고프(19·미국)는 일찌감치 ‘제2의 세리나 윌리엄스’로 기대를 모은 선수다.

고프는 14세에 프랑스오픈 주니어 여자 단식에서 우승하며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2019년 윌블던에서는 역대 최연소인 15세 122일의 나이에 예선을 통과하며 16강까지 올랐다. 그해 10월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대회에서 우승했다. 2018년까지 700위권이던 고프의 단식 랭킹은 2019년 연말 68위를 찍었다.

이때부터 고프에게는 ‘윌리엄스의 후계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메이저 대회에서 오픈 시대 역대 최다 23회 우승을 일구고 올림픽 금메달을 4개나 거머쥔 윌리엄스는 모두가 인정하는 여제다.

15세 소녀가 짙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고프는 마블 영화를 사랑하고, 때



코코 고프

로는 운동선수에게 금기시되는 설탕 범벅 케이크도 먹는 ‘긍정 마인드’로 압박감을 이겨냈다.

/연합뉴스

## ‘무결점’ 안세영, 올해 9번째 금메달

중국오픈 여자 단식 우승  
혼복 서승재-채유정 금

여자 배드민턴 안세영(21·삼성생명)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나선 최종 점권전에서 여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0일 중국 장쑤성 창저우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2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에게 2-0(21-10 21-19)

으로 완승했다.

지난달 27일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우승 이후 2주 만이자 올해 통산 9번째 금메달이다.

1세트 9-7에서 연속 득점으로 더블스코어 승리를 거둔 안세영은 2세트 후반 야마구치의 맹추격에 따라잡혔다가 19-19에서 뒷심을 발휘했다. 경기 시간은 38분에 불과했다.

혼합복식에서는 서승재(삼성생명)-채유정(인천국제공항)이 프랑스의 톰 지켈-텔핀 텔후이를 2-0(21-19 21-12)으로 꺾고 우승했다.

서승재-채유정도 2주 전에 열린 세계개인선수권대회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다.

여자복식 백하나(MG새마을금고)-이소희(인천국제공항)는 세계 1위 천칭천-자이판(중국)에게 0-2(11-21 17-21)로 패해 준우승했다.

남자복식 서승재-강민혁(삼성생명)은 전날 말레이시아팀에 가로막혀 최종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대표팀은 이달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연합뉴스